

6. 나의 마음 너에게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以 ² 心 ¹ 傳 ⁴ 心 ³ 이 심 전 심	以 써 心 마음 傳 전하다
풀이	• 以: ~로써(도구, 방법) ▶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함(→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성어	易 地 思 之 역 지 사 지	易 바꾸다 地 땅, 처지 思 생각 之 그것
풀이	• 地: 처지 • 之:그것(지시 대명사) ▶	
성어	同 苦 同 樂 동 고 동 락	同 같다 苦 쓰다, 괴롭다 樂 즐기다
풀이	• 同: 함께하다 • 樂: (락)즐기다, (악)음악, (요)좋아하다 ▶	
성어	言 行 一 致 언 행 일 치	言 말씀 行 다니다 一 하나 致 이르다
풀이	• 行: 행동 • 一致: 하나에 이름, 어긋남이 없음. ▶	

성어	禮 俗 相 交 예 속 상 교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禮(례→예)어휘의 첫소리가 ‘ㄴ’, ‘ㄹ’로 시작되는 경우에 ‘ㅇ’으로 발음. • 俗:풍속 • 禮俗相交:향촌 규약의 4대 덕목 가운데 하나. 	禮 예도 俗 풍속 相 서로 交 사귀다
	▶	

성어	殺 身 成 仁 살 신 성 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殺身: 자신을 희생함. • 仁:성품이 너그럽고 덕행이 높음. 	殺 죽이다 身 몸 成 이루다 仁 어질다
	▶	

※ 함께하는 사회에서 가져야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성어를 통해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樂勝 낙승 • 安樂 안락 • 樂曲 악곡 • 樂想 악상 • 樂山樂水 요산요수 •	• 산수(山水)의 자연을 즐기고 좋아함. • 음악의 곡조. • 힘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이김. • 음악의 주제, 구성, 곡풍 따위에 관한 작곡상의 착상. •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
---	---

〔나〕

山城 산성 • 邑城 읍성 • 誠心 성심 • 孝誠 효성 • 盛業 성업 • 昌盛 창성 •	• 한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곳곳에 문을 만들어 외부와 연결하게 쌓은 성. • 정성스러운 마음 • 사업이 잘됨. • 산위에 쌓은 성 •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 나감. •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	---

〔다〕

出發 출발 • 家庭 가정 • 敬老孝親 경로효친 • 學校 학교 • 協同 협동 • 停留場 정류장 • 交通安全 교통안전 • 公園 공원 • 讓步 양보 • 到着 도착 •	•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함. •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버스나 택시 따위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 • 교통질서와 교통 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또는 그런 일. •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 • 목적한 곳에 다다름. •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	--

【꼭 알아 둬시다】

■ ‘以’의 쓰임 : ~로써, ~로(도구, 방법)

- 以熱治熱 : 열로써 열을 다스림.
- 以夷制夷 :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림.
- 以實直告 : 사실로 그대로 알림.

■ ‘之’의 쓰임 : 그것(지시 대명사)

- 愛之重之 :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 結者解之 :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함.

■ 성어의 유래와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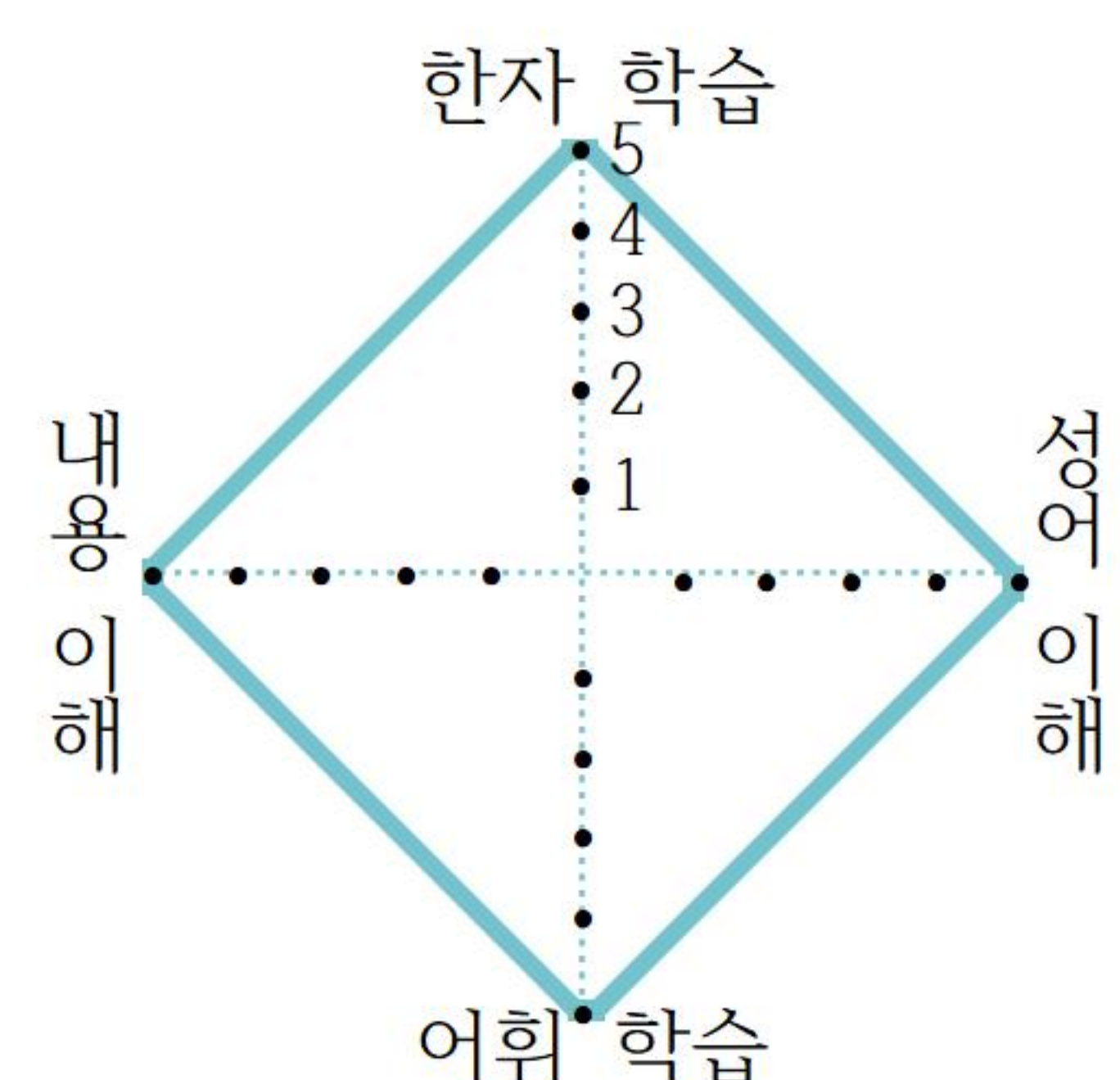
• 以心傳心(이심전심) :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연꽃 한 송이를 들어서 보이자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으나 ‘마하가섭’이란 제자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로써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부처님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마하가섭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 易地思之(역지사지) : “맹자(孟子)” 이루(離婁)편의 ‘우왕과 후직과 안회가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러하였을 것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 처지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뜻이다.

• 禮俗相交(예속상교) :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전서(栗谷全書)”에 무릇 마을의 약속은 네 가지이니, 첫 번째는 덕스러운 일을 서로 권하는 것(德業相勸)이고, 두 번째는 잘못과 실수를 서로 경계하는 것(過失相規)이고, 세 번째는 예의에 맞는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禮俗相交)이고, 네 번째는 근심과 어려움을 서로 구휼하는 것(患難相恤)이다.

• 殺身成仁(살신성인) :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편에 공자가 말했다.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을 행할 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에는 공자가 진리라 생각하는 것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맹세한 중요한 결의를 보여 준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7. 옛것을 배워서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坐 ² 좌井 ¹ 정觀 ⁴ 관天 ³ 천	坐 앉다 井 우물 觀 보다 天 하늘
풀이	• 우리말 속담 : 우물 안 개구리 ▶ 우물 안에 앉아 하늘을 봄(→ 견문(見聞)이 매우 좁음.)	
성어	溫 ² 온故 ¹ 고知 ⁴ 지新 ³ 신	溫 따뜻하다 익히다 故 예 知 알다 新 새롭다
풀이	• 溫: 익히다 ▶	
성어	日 ² 일就 ¹ 취月 ⁴ 월將 ³ 장	日 날 就 나아가다 月 달 將 장수, 나아가다
풀이	• 日:날마다 月:달마다 • 將: 나아가다(발전하다) ▶	
성어	他 ² 타山 ¹ 산之 ⁴ 지石 ³ 석	他 다르다 山 산 之 어조사 石 돌
풀이	• 他: 다르다, 남 • 之: ~의 ▶	

성어	教 學 相 長 교 학 상 장	教 가르치다 學 배우다 相 서로 長 길다, 자라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자라다(성장하다) 	

성어	老 馬 之 智 노 마 지 지	老 늙다 馬 말 之 어조사 智 지혜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老馬:경험이 많은 사람을 비유. • 之:~의 	

※ 배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苦杯 고배 • 故國 고국 • 故事 고사 • 堅固 견고 • 苦笑 고소 • 固執 고집 •	•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 쓴 웃음. • 굳고 단단함. •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 주로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 • 쓴 술이 든 잔, 쓰라린 경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나〕

將來 장래 • 將校 장교 • 長壽 장수 • 將次 장차 • 長久 장구 • 里長 이장 • 船長 선장 • 將星 장성 •	• 육.해.공군의 소위 이상의 군인. • 행정 구역의 단위인 ‘이(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 보는 사람. • 앞으로의 뜻으로 미래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말. • 장군. • 다가올 앞날. • 매우 길고 오래다. •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것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 오래도록 삶.
--	---

〔다〕

驚異 출발 • 宇宙 가정 • 逆發想 역발상 • 無 무 • 有 유 •	•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 놀랍고 신기하게 여김. 또는 그럴 만한 일. •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 냄. • 있음. • 없음.
---	---

【꼭 알아 둬시다】

■ 溫 : (온) 따뜻하다, 익히다

- 溫氣(온기) : 따뜻한 기운.
-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앎.

■ 之(어조사)의 쓰임

- 他山之石(타산지석) : 다른 산의 돌
- 老馬之智(노마지지) : 늙은 말의 지혜
- 漁父之利(어부지리) : 어부의 이익/둘이 다투는 사이 제 3자가 이득을 취함.

■ 성어의 유래와 출전

• 坐井觀天(좌정관천): “장자(莊子)”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말로,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과 뜻이 통한다. 황하의 신(神) ‘하백’이 처음 바다에 나와 북해까지 가서 동해를 바라보며 끝없음에 놀랐다. 그것을 불새의 신인 약(若)에게 말했는데 약이 말하기를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해도 알지 못함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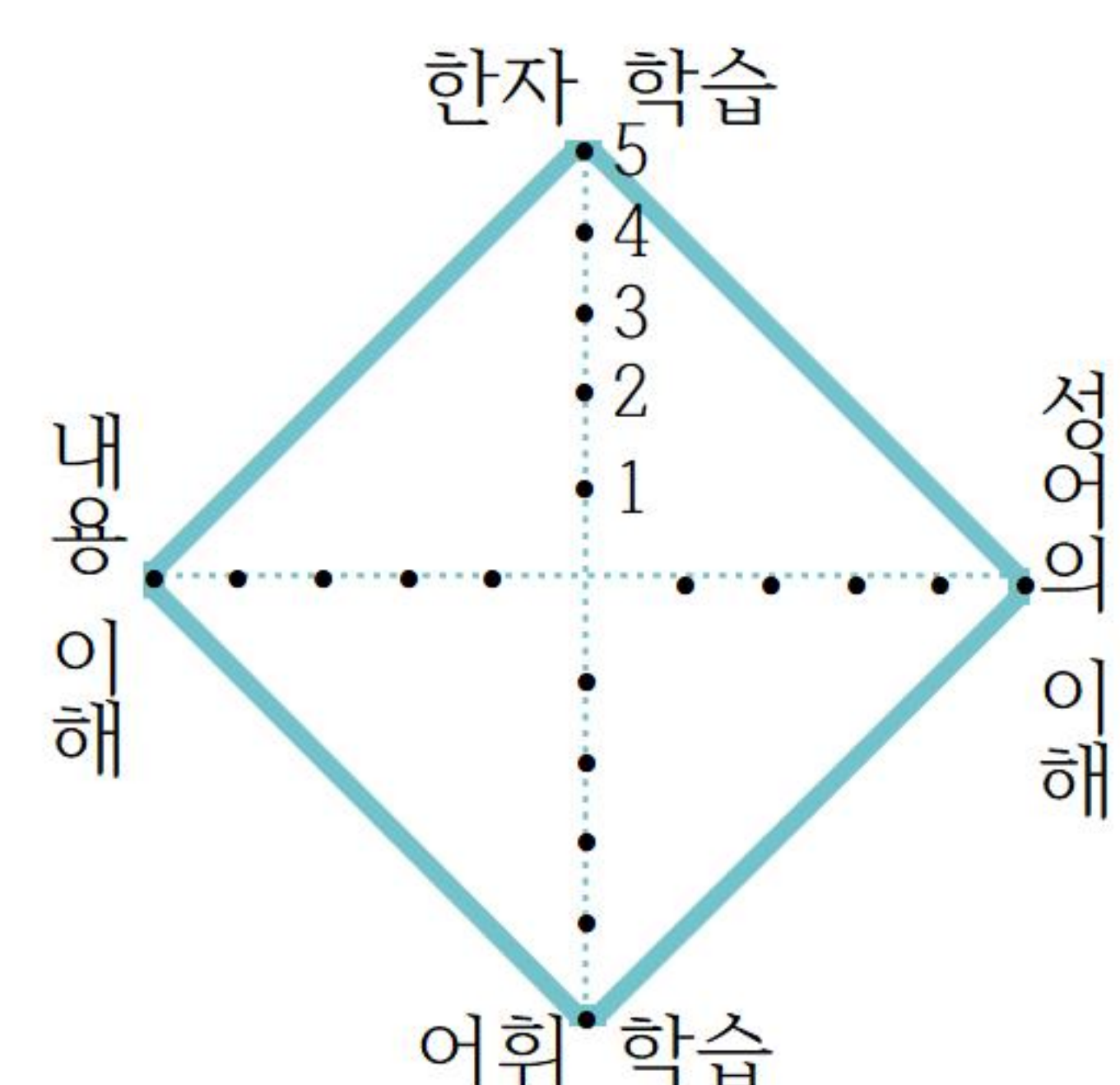
• 溫故知新(온고지신):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 중에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있다. 역사를 배우고 옛것을 배움에 있어, 옛것이나 새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日就月將(일취월장): “시경(詩經)”의 ‘경지(敬之)’에 나오는 말로, 끝없이 노력하면 날마다 달마다 발전해 나아간다는 뜻.

• 他山之石(타산지석): “시경(詩經)”의 ‘학명(鶴鳴)’에 나오는 말이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구슬 가는 슯돌이 된다.(他山之石 可以爲錯) 즉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他山之石 可以爲攻玉)는 말에서 나왔다.

• 교학상장(교학상장):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 ‘학기(學記)’편에 “좋은 안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 보아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 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8. 말하지 않아도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知 ² 音 ¹ 지 음	知 알다 音 소리, 음악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音: 소리, 음악 ▶ 소리(음악)을 알아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친구) 	
성어	登龍門 등 용 문	登 오르다 龍 용 門 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龍門: 중국 황하 상류의 물살이 강하고 급한 지점. ▶ 	
성어	漁父之利 어 부 지 리	漁 고기 잡다 父 아비 之 어조사 利 이롭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之: ~의 漁父: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성어	朝三暮四 조 삼 모 사	朝 아침 三 셋 暮 저물다 四 넷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暮: 저녁 ▶ 	

성어	結 草 報 恩 결 초 보 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結: 묶다, 엮다 	結 맺다 草 풀 報 갚다 恩 은혜
	▶	

성어	五 十 步 百 步 오 십 보 백 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五十步 ∨ 百步 	五 다섯 十 열 步 걸음 百 일백
	▶	

※ 유래가 있는 성어를 학습하고 성어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를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音聲 음성 • 低音 저음 • 原音 원음 • 言行 언행 • 發言 발언 • 甘言 감언 •		• 글자 본디의 음. •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 • 낮은 소리. • 남의 비위에 맞도록 듣기 좋게 꾸미어 하는 말. • 말을 꺼내어 의견을 나타냄. • 말과 행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

〔나〕

問喪 문상 • 下問 하문 • 閑居 한거 • 忙中閑 망중한 • 間或 간혹 • 早晚間 조만간 • 見聞 견문 • 傳聞 전문 •		• 한가하게 집에 있음.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하여 들음. •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위문함. • 어쩌다가 한 번씩 •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 • 앞으로 곧.
--	--	---

〔다〕

破竹之勢 파죽지세 • 百戰百勝 백전백승 • 多多益善 다다익선 •		• 대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 •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 싸울 때마다 다 이김.
---	--	--

【꼭 알아 둬시다】

■ 성어의 유래

• 知音(지음): 백아가 높은 산을 떠올리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하였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하고 감탄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부수로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즉 종자기는 백아의知音이었던 셈이다.

• 登龍門(등용문): 황하 상류에 용문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근처에 흐름이 매우 빠른 폭포가 있었다. 그 밑으로 큰 고기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으나 폭포 위로 오르지 못하였으며, 만일 오르기만 하면 용이 된다고 하였다. 그 후 이 말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출세의 문턱을 넘는 일을 말하게 되었다.

• 朝三暮四(조삼모사): 송(宋)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를 줄이려고 했으나, 원숭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속임수를 써 말했다. “너희에게 도토리를 주되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다 일어나서 화를 냈다. 저공은 바로 말을 바꾸었다.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만족하겠느냐?” 여러 원숭이가 다 앞드려 절하고 기뻐하였다.

•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 양혜왕이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지 묻자, 맹자가 왕에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라며 나라의 부강에 대한 관심을 은근히 질책하였다. “전쟁에 나간 병사 중에 한 병사는 100보를 도망가고 또 한 병사는 50보를 도망갔는데,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겁이 많다고 비웃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양혜왕은 전쟁에서 도망간 것은 50보 도망간 병사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자, 맹자는 모든 왕들이 부국강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망친 병사들과 같으며 오로지 왕은 인의(仁義)로만 정치를 펴야 한다고 설득했다.

• 破竹之勢(파죽지세): 사마염(司馬炎)이 오(吳)나라를 치려고 할 때 두예(杜預)가 작전 회의를 열었는데 한 장수가 지금 당장 오나라를 덮치는 것은 어려우니 회군하자고 하자 두예가 단호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지금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요. 대나무는 처음 칼날이 두세 마디만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저절로 쪼개지는 법인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요?”라고 하였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